

11/18/18

설교 제목: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결단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시편 126 편 1-6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 126: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 126: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절관주** 욘 8:21

(시 126: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 126: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절관주** 사 43:19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절관주** 암 5:12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지 70 년만에 기적과 같이 귀환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본 시에 곡조를 붙여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포자기 했습니다.

10 년 20 년 30 년 40 년 50 년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소망조차 사그러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기약도 없이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는 포로 생활을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세도당당해서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BC 539 년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1-3 절까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때를 회고하며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4-6 절까지로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완성을 소망하며 결단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그러나 아직 성전 재건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받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했듯이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그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토로합니다.

(시 126: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왕국은 BC 1050 년경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며 최고로 번창했지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 북 이스라엘은 BC 722 년에 앗수르에게, 남 유다는 BC 586 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남 유다를 3 번에 걸쳐 공략했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못 배우고 가진 것없는 하류층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 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렘 29:1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후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 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조차 사그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뼈저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져 버린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참으로 꿈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약속하신 70 년이 지난 BC 516 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낙원,

우리 모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낙원 회복을 꿈꾸며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사는 것들 즉 성공, 성취, 풍요, 기쁨, 만족, 즐거움, 행복 등등이 바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진정 낙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 126: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막상 이 일이 이루어지자 못 나라 곧 모든 나라가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잘난 인간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스룹바벨의 동족 사랑과 바사 고레스 왕의 선처, 더 나아가서는 바사의 새로운 포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강건하던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포로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 줄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찍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복락원의 꿈을 꾁니다.

낙원을 잃음으로써 겪고 있는 고난, 슬픔, 아픔, 눈물, 고통 등으로부터 돌아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낙원으로 들어가기로 꿈꿉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시 126: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조국에 돌아온 것도 물론 기뻐지만 사실 그 보다 더 기뻐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그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눈물과 슬픔을 지켜보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맞추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조차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해 주실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시인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아직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르익은 오곡백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는 그동안 돌보는 이가 없어 황무지로 변해버린 황폐한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겨주는 이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이 눈물나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시 126: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팔레스타인 남쪽 네게브 지역을 가리킵니다.

남방 시내는 우기철이 아니면 물이 없어 바짝 마릅니다.

그러나 우기철이 오면 물이 흐르고 물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 앞에 펼쳐진 황폐한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한 장면을 그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 126: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린 배를 움켜쥐고 힘써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남방 시내에 건기가 우기로 바뀌어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 맺히듯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년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추수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덕택에 참으로 감사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성화의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 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